

지역 매아리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최선”

김제시, 사물인터넷 시대 개막

김제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공모한 '2019년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 검증·확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한다.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 검증·확산 사업'은 다양한 사물인터넷 분야 DNA(Data, Network, AI) 융합 제품·서비스 발굴을 통해 사물인터넷 기업을 육성하고 공공부문, 일상생활 등 국가 전반에 사물인터넷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주관사인 ㈜스파이어테크놀로지과 김제시를 포함한 6개 민·관 협력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7월 말 중계기 설치 공사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되며, 김제시 사업비는 시비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5억5천만 원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사물인터넷 기반 조성을 위한 무선자기망(LoRaWAN)을 구축하고, 마을 생활안전 CCTV 상태감시, 실외형 미세먼지 측정기를 통한 환경 상태 정보제공, 시민의 안전한 발걸음을 위한 스마트보안등 서비스 등을 시범 구축·운영한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성덕면 주민자치위원회

‘찾아가는 실버콘서트’ 진행

김제시 성덕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조혜영)는 무더운 여름,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을 방문하며 다함께 흥겨운 노래한마당을 즐길 ‘찾아가는 실버콘서트’를 추진하고 있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다.

유난히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요즘, 성덕면 주민자치위원들은 뜻의 묘자치 무료해질 수 있는 어르신들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지역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실버콘서트’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주회(화) 10개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약 150여명과 함께 노래공연, 다함께 부르는 트로트메들리 등 흥겨운 노래한마당을 9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23일, 오후2시 내시경로당에 어르신 21명, 주민자치위원 15명이 모였고, 이은옥 노래강사의 진행 아래 흥겨운 노래한마당 시간을 2시간 가량 가졌으며, 주민자치위원들은 어르신들을 위한 과일을 준비했다. 어르신들은 무더위에 지친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고, 흥겨운 시간을 가지며 이날 행사를 즐거워했다. 행사를 추진한 조혜영 성덕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어르신들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추진한 실버콘서트가 성황중이어서 너무나 기쁘다.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역에 활력을 드리고 싶다”며 이날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아리' 2기 사전교육 및 컨설팅 실시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청년창업 지원사업 '아리'(All-Re) 2기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 차별화된 창업 아이템 및 사업화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나섰다.

23일 김제시청 3층 회의실에서 2기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교육은 박준배 김제시장의 인사말씀과 '아리' 사업 취지 및 내용 소개, 로컬엔컴퍼니 마지영 대표의 창업아이템 발굴 방법 교육 및 KNG 경영컨설팅 김남기 대표의 사업계획 수립 및 고객확보 전략 방안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강의 후 창업에 대해 열정은 있지만 경험이 다소 부족한 청년창업가의 니즈(Needs)를 반영해 본인이 작성한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후 오는 26일 1차 서류심사를 실시, 참여자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오는 1일 신청자 PT 발표 후 심사자 질의응답 형식으로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적격성 검증을 거쳐 선정시 최대 팀(인)당 1,800만원의 창업초기비용이 지원되며 역량강화 교육과 지속적인 맞춤형 컨설팅(멘토

링)을 통해 청년창업의 리스크(Risk)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광진)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단일사업 중 전북 최대 참여인원인 32명 정도의 청년창업팀을 양성,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창업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들을 적극 지원해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창업정책을 통해 지역에서 자란 청년이 김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아리'(All-Re) 사업은 '모든 것(AI)을 다시, 새롭게(Re)' 시작하자는 의지를 담은 김제시 사업명으로 지난 5월말 15팀 19명의 1기 참여자를 선발했으며 오는 8월까지 2기 참여자 선발 및 기본역량강화 교육·컨설팅을 진행한 후 9월부터 본격적인 실전 창업에 나설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23일 김제시청 3층 회의실에서 청년창업 지원사업 '아리'(All-Re) 2기 신청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박성일 완주군수, '사회적경제' 인정받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서 '소셜굿즈' 로 특별상 영예

박성일 완주군수가 소셜굿즈의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사회적경제특별상을 수상했다.

23일 경기도에서 열린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제24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박성일 군수가 CEO상인 사회적경제특별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의 성과를 창출하고 행정의 혁신을 실현한 지방자치체에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특히, 박 군수는 지난해 대상자가 없어 시상이 진행되지 않았던 사회적경제 부문에서 특출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군수는 사회적경제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했던 지난 2017년, 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기조에 맞춰 완주형 사회적경제 '소셜굿즈 2025 플랜'을 군 핵심정책으로 발표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로컬푸드를 뛰어넘어 문화, 교육, 돌봄, 주거, 에너지 등 군민 삶의 질 영

역까지 사회적경제 확장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한다는 것이 프로젝트를 관통하는 핵심가치다.

현재 완주군은 소셜굿즈 전담팀을 신설하고 민간네트워크 조직인 완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의 협치를 통해 소셜굿즈 조직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300개 이상 자립형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군민의 협동조합 참여율을 30%로 높여 5000개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박 군수의 사회적경제 선도적인 역할들이 큰 호응을 받으면서 올해 지방자치경영대상 특별상의 주인공으로 낙점받게 됐다.

박성일 군수는 “사회적경제는 지역자립과 순환경제를 위한 것으로 미래경제의 핵심이 될 것이다”며 “소셜굿즈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용 성장을 견인하여 주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직원 역량강화교육 실시

김제시는 지난 22부터 23일까지 2일간 금구면 삼성생명연수소에서 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직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평소 시민을 위해 일해왔던 공무원 및 공무원직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다독여주기 위해 “감정노동자를 위한 힐링”이라는 주제로,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해 스트레스 정밀진단, 힐링 디스크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양성민원, 특이민원 증가로 정신적 감정노동 스트레스에 지친 직원들의 심신안정과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원인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 교육이었다.

올해 교육은 박준배 김제시장이 평소 강조해온 관내에서의 투자승수효과를 구현하기 위하여 김제시 관내에서 실시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가 전북지역 소외계층의 세상 나들이를 지원하는 행복드림버스 사업에 사회공헌기금 4000만원을 지원했다.

“청소년들이 큰 꿈 꿀 수 있도록”

현대차 전주공장, 전북에 행복드림버스성금 4천만원 '쾌척'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문정훈) 노사가 올해도 전북지역 소외계층의 세상 나들이를 지원하는 행복드림버스 사업에 사회공헌기금 4000만원을 쾌척했다.

사회공헌활동 파트너 기관인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이동센터 전북협의회 등과 함께 하는 이 사업은 올해의 경우 전북지역 이동센터 20곳을 대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팀당 지원금액을 200만원씩으로 대폭 늘려 1박2일 짜리 여행프로그램으로 구성함으로써 참가 청소년들이 보다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여행프로그램 중에는 최근 새로운 관광명소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경기도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 방문 등이 포함돼 있으며, 참가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4D 시뮬레이션 라이딩 체험, 넥소 자율주행차 만들기 등 이색체험을 즐길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는 이번 여행프로그램이 참가 청소년들에게 다채로운 세상 경험을 선물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큰 꿈을 설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는 23일 전북도청에서 최용범 행정부지사,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드림버스 기금 4,000만원 전달식을 갖고, 전북지역 소외계층의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014년 전북 익산시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황 모 씨 사연을 접한 뒤 행복드림버스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

당시 황 씨는 “춤, 노래도, 이야기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현재의 저는 그저 조그만 방, 조그만 텔레비전으로 세상을 마주할 뿐”이라는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넓은 세상을 향해 나가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해왔다.

이를 계기로 2015년 4,000만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쾌척해 장애인시설 등 전북지역 31개 기관에 50대의 여행용 버스를 지원했으며, 2016~2017년 각 5,000만원 등 올해까지 총 2억3,000만원의 기금을 바탕으로 총 208대의 행복드림버스를 지원해오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상반기 안전신고 전복 1위 달성

김제시는 23일 전북도가 주관한 '2019년 안전신고 우수시민에 대한 포상'에서 김제시민이 최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날 열린 상반기 안전신고 우수시민 포상금 수여식에서는 700여 건을 신고한 안전모니터봉사단 김제시지회장(황명희,검산동)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제시는 상반기 교통안전 분야에 1,445건, 사회안전 640건, 생활안

전 위해요소 286건 등 총 2,531건이 접수되어 전북도에서 1위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일상생활 속의 각종 위해요소를 조기에 발견·

해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황명희 지회장은 “상을 받기 위해 안전신고를 한 것은 아닌데 과분한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